

## コーヒーが繋いだチェジュと私

커피가 맺어준 제주와 나

檜垣祐太郎(히가키 유타로)



2015年夏、私とチェジュ島との縁が始まった。  
私はハンドドリップを中心にコーヒーを勉強している。元々コーヒーを習っていた先生が韓国人の方ということがあって韓国のソウルにはよく行っていた。

ある日、知人がチェジュ島に行ってみようという突然の提案を受けて旅行することとなった。チェジュ島についての知識は当時まるでなかったのだが、空港に到着し海岸をレンタカーで走るときに感じたのは韓国でも日本でもない、言うならば沖縄にとっても似ているという感覚だった。広大な自然、少し湿った海の風。山も海も青々とした光景が心に沁みた。今でも鮮明に覚えている。その時はチェジュ島のカフェめぐりオルム(丘)にいくつか登った。それからチェジュ島へはたびたび行くようになった。

韓国で過ごす中で私はチェジュ島の方と触れ合うことが不思議と多かった。その縁もあってチェジュ島でいつも行くところは東側に位置する城山日出峰。近くに知人の家がありそこに泊めていただいていたのだ。

またその方がチェジュ島のオルムに登るのが趣味で何度も一緒に同行した。早い時には朝5時には家を出て一日中オルムに登る。最大8つのオルムに一日で登ったほどで一気にパワーをもらい、どんどんエネルギーに充ちるというハイペースぶりだった。登るのはしんどいけど山頂からの景色、そしてそれを見ながら食べるキンパとコーヒーの組み合わせが何となくやめられない幸せを与えるのであった。本当にこれはチェジュ島に来て皆さんに体験してほしいと心から思う。そんなこともあって今まで合計100個以上のオルムに登った。365個ほどのオルムがチェジュ島には存在するそうなのでいつか完全制覇も夢ではないなとも思っている。

チェジュ島との縁はさらに発展し、知人のサポートでカフェ経営にまで発展。2020年度から1年間カフェの運営を任せていただいたこともあった。バリスタとしてコーヒーを淹れながらマネジメントまで様々な経験をする事ができた。

現在はソウルにあるカフェでコーヒーを淹れ続けている。それでもチェジュ島との縁が切れたわけではない。定期的にチェジュ島のカフェにゲストバリスタとして訪問することもある。またソウルの勤め先のカフェの社長に関しては最初にカフェをオープンした場所がなんとチェジュ島だというのだ。私とチェジュ島は切っても切り離せない縁ができているように思える。

今後は自分自身のカフェやその他の交流スペースをチェジュ島、そして母国である日本にも建てたいという夢がある。夢の始まりの場所であるチェジュ島が今後も私にとって人生の活動拠点となるだろう。

2015년 여름, 나의 제주도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나는 핸드 드립을 중심으로 커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다. 원래 커피를 배우고 있었던 선생님이 한국분이기에 한국 서울에는 자주 갔었다.

어느 날 제주도로 가보자고 하는 친구 말에 갑자기 제주도 여행이 결정되었다. 제주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제주 공항에 도착하고 해변을 렌터카로 달리는 중 느낀 것은 한국도 일본도 아닌, 굳이 말하자면 일본 오키나와와 같은 분위기였다. 거대한 자연, 조금 습기 많은 바닷바람... 푸른 바다와 산들이 마음 깊숙이 들어왔다. 그 모습은 지금도 선명하게 생각한다. 그때는 제주도 카페를 다니며 오름을 몇 개 올랐다. 그리고 나서는 제주도를 자주 가게 되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다른 지역도 아닌 제주도와의 관계가 신기하게도 많았다. 제주도 분과의 인연도 있어 자주 가는 곳은 제주도 동쪽에 위치하는 성산 일출봉이었다. 주변에 그 지인 집이 있어 자주 가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지인분이 제주도 오름을 타는 것이 취미였던 것도 있어 나는 자주 그 취미를 함께 했었다. 아침 일찍 출발할 때는 아침 5시에는 출발하고 하루 동안 오름을 탄다. 많을 때는 하루에 8개 오름을 탄 적도 있었던 정도이다. 거대한 자연의 힘을 받아 쉴 틈 없이 다니는 속도는 남다른 것이었다. 오름을 오르는 것은 솔직히 힘들지만, 정상에서 보는 경치와 그곳에서 먹는 김밥과 커피는 어디서 먹는 것보다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그 행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환상이다. 아직 이것을 안 해보았다면, 정말로 제주도로 와서 직접 체험했으면 한다고 진심으로 느낀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한 덕분에 나는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오름을 타게 되었다. 제주도에 365개 정도의 오름이 존재한다고 한다. 언젠가는 그 모든 오름을 타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도와 나의 인연은 더 발전하여 지인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 성산에서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다. 2020년부터 1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는 시간을 바리스타, 그리고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나 기술 등 다양하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지금은 서울에 있는 카페에서 계속 커피를 내리고 있다. 서울에 있지만 제주도와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기적으로 제주도 카페로 게스트 바리스타로 방문할 때가 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현재 근무하는 서울 카페의 사장님도 처음에 제주도에 카페를 열었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나와 제주도의 인연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다.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카페를 열어 그 공간에서 커피나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제주도, 그리고 일본에도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다. 나의 꿈의 시작점인 제주도가 앞으로도 나에게 중요한 중심지가 될 것이다.



(수상작 원본은 일본어이며, 한국어 번역본은 수상자가 작성함.)